



# Beijing Exhibition Center

안준모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지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책과 평화(Books and Peace)'라는 주제로 중국 북경에서 5일간 북경국제도서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북경국제도서전에는 42개국, 984개사(2003년도 40개 국가 939개 사)가 참가하였다. 한국관은 34개 부스에 모두 23개사가 참가하여 2003년보다 크게 늘어난 800여 건의 저작권 거래상당 및 203건, 192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과 비교하여 전시규모와 참가사의 수는 크게 변화된 바 없으나, 각종 특별코너를 설치하고,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포럼과 세미나 및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참가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시회 시작 전날인 9월 1일 저녁 6시 30부터 천안문광장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해외참가사 도서전 개막식 및 환영리셉션이 개최되었다. 인민대회당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으로, 중국이 국제행사를 치를 때면 으레 외빈들을 초청하여 한바탕 잔치를 벌이면서 그 규모와 위용을 뽐내는 장소다.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상에 모습을 드러낸 많은 VIP들이 있었지만, '집안 잔치' 마냥 중국측 인사들 소개와 인사말 일색이어서 국제적 관례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참가자들의 반응이었다. 또, 전시기간용 입장권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한 장당 미화 20달러(원화 2만3,000원)를 받는 반면에, 내국인들에게는 50위안(원화 7,300원)을 받아 거의 1만6,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같은 관행은 "외국인들은 돈이 많다"는 선입견도 있겠지만, 자국인 위주의 폐쇄적인 그들 문화의 단면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외국과 외국인을 대할 때 흔히 보여준 행태이긴 하나, 국제화 시대에 아직 적응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과 함께, 2008년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한국관, 지난해보다 상담 및 계약 크게 늘어

북경국제도서전에서 한국관 운영은 금년으로 여덟 번째인데, 매년 참가 때마다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올해는 34개 부스, 306㎡의 공간에 23개사 참가 규모를 자랑했다. 전시도서도 처음으로 2,000종을 넘겨 2,321종 3,607권에 달했다. 그동안 많은 참가사들은 이 도서전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전시회에 한두 번 참가해 보고 가시적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과는 달리, 꾸준히 참가하면서 매년 수출실적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반관람객의 전시장 입장요금은 인민폐 10위안(원화

1,45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두 배인 20위안(원화 2,900원)으로 올려 받게 되었다. 맥도날드 지수를 고려하여 본다면, 한국원화로 6,400원 가량 되는 돈인데, 중국의 물가수준으로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일반관람객은 전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한국관을 찾는 중국출판계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했고, 지난 몇년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저작권 계약 등의 의사결정 또한 쉽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한류 영향, 2000년대부터 한국도서 수입 증가 왜 중국인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해외진출은 한류韓流 영향으로 지난 2000년대부터 중국어권 국가(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동남아 화교권 등)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출판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등 세계 유수의 도서전에 지난 10여 년 간 참가하여 수출한 실적보다 한해 동안 중국어권 국가의 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액이 훨씬 많다.

중국경제의 한해 성장률은 1980년대 개방정책 이후 매년 8~9퍼센트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산업은 12퍼센트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에선 소비재 등 경공업 분야 등의 개방은 일찍이 이뤄졌지만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출판·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는 체제강화와 사상통제와 밀접하므로 쉽게 개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복종하는 인성교육보다 부국강병을 위해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과학·기술부문과 아동교육부문을 필두로 서

서히 해외 출판물의 수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미권 도서 수입에 치중하다 점차 일본의 도서를 수입해 왔다. 그러나 구미권 도서의 가격이 너무 높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점차 한국도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도서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거대한 중국출판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한국출판계도 수차에 걸친 도서전 참가를 통하여 이미 목격한 바 있다. 그건 바로 '이제 왜 중국인가?' 에 대한 답이다.

9월 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한민국출판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주제로 국내 참가사 및 참관단, 기자단 등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 출판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된 연사들간에 중국출판계 현황과 중국출판사와의 저작권 거래 내용 및 중국진출 전략에 관한 얘기들이 오갔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반응이 매우 좋았다.

### 2004년 출판도매업종을 필두로 2007년 완전 개방

중국 내 570여 출판사는 모두 국영기업체다. 체제 안정과 사상통제를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개방은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틈새를 뚫기 위해 문화산업공사의 형태로 국영출판사의 명의를 (ISBN 등) 빌려 출판업을 하는 개인 및 에이전시가 1만여 업체에 달한다. 이들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에 달한다. 2002년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함으로써 5년이 경과하는 2007년까지 외국투자자본의 출판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WTO체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즘 중국출판사들은 그룹화(집단화)를 추진하고 민영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를 거치고 있다. 2004년 7월 1일 현재, 출판유통분야 중 소매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개방이 되었으며, 2004년 말까지 도매업종도 완전히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007년까지 완전개방을 전제로 발빠르

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출판계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국출판계에서도 각 단계에 상응하는 진출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국내에서 중국에 관한 화두는 단연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이다. 공산당의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의 한계와 사상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당국은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나온 것이 중화패권주의와 역사왜곡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느닷없는 참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쳤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는 중공군이 중국군으로 불리는 시대가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자국의 경제이익과 시장경제논리로 인하여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반자로 둔갑하는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중국인은 없으며 그들은 앞으로 우리의 최대의 경쟁자가 될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각 산업부문에서, 특히 출판산업에서 언제까지나 Made in Korea와 한류韓流가 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의 성장만큼이나 우리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여야만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힘과 경쟁우위의 바탕에서 상생의 길과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역사왜곡과 같은 어이없는 일은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

- 이번 북경국제도서전시회에 우리나라는 34개 부스, 306m<sup>2</sup>의 공간에 23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800여 건의 저작권 거래상담 및 203건, 192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